

“광주·전남은 내 정체성의 뿌리…가족 꼭 찾고 싶어요”

광주·전남 출신 입양인 10명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

1960~70년대 스웨덴으로 입양...한국에서의 기억 잊지 못해 스웨덴 양어머니 “네 고향은 광주...5·18민주화 역사도 알려줘” “힘들고 원망도 했지만 형제·자매 찾으면 기쁘게 안아줘야죠”

전자영과 샤를로타폰세스, 서정숙과 카리나발스 코그다린. 그들은 한국 이름과 스웨덴 이름을 갖고 있다. 수 십년간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온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한국’이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1960~1970년대 광주·전남에서 스웨덴으로 건너간 입양인 10명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13일 광주에 도착한 이들은 언론 등에 자신이 입양될 당시의 상황들을 제공하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애та게 찾고 있다.

15일 광주영상복합관에서 스웨덴 입양인 광주모임과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주최로 열린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 행사는 입양인들의 생생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전자영(47)씨는 1983년 5살이 되던 해 처음 스웨덴 땅을 밟았다. 전씨는 3살 때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전남영아일시보호소에 입소, 광주 영신원으로 옮겨진 뒤 해외 입양됐다. 그녀의 이름은 영신원에서 지어졌고 한국 나이 역시 추정일 뿐이다.

수십년이 지나지만 고아원 바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잠들었던 기억, 바닥에 줄지어 앉아 쟁반에 음식

을 담아 먹었던 기억은 선명하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한국에서의 일들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지켜낸 기억들이다. 스웨덴 양어머니는 늘 “네 고향은 광주”라고 말해줬고 광주에서 발생한 5·18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전씨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는 버려진 것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는다”며 “나를 돌보려했던 오래전 광주의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왔고, 이 도시를 다시 찾아 기쁘고 광주를 더 알고싶다”고 말했다.

세자녀와 함께 스톡홀름 외곽 낙카지역에서 살고 있는 김미선(58)씨는 6살 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찾은 뷔페에서 처음 한국인을 만났다. 그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한국어를 알 수 없어 대화가 불가능했다. 처음 한국을 찾았던 날, 공항에서 내려 바라본 붉은 노을은 김씨를 울게 만들었다.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들과 함께지만 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없었고, 소속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내 부모 역시 어떤 부모도 할 필요없는 가슴아픈 결정을 강요받았을 뿐, 이미 수년 전 그들을 용서했다”며 “광주에서 내 형제·자매, 친척을 찾아 기쁜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다”고 이야기



15일 광주영상복합관에서 열린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웨덴 입양인들이 환하게 웃어보이고 있다.

했다. 채석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스웨덴 해외입양 흐름의 형성’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입양국가다. 1950년대 한국전쟁에 중립국으로 참여했던 스웨덴 봉사자들이 전쟁이 끝나고 한국 고아들을 데려간 것이 비공식적인 입양의 시초로, 현재 스웨덴에는 한국인 입양인이 약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도 있었다. 태어난지 3개월 만에 전남영아일시보호소에 입소한 이형자(53)씨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왔지만 늘 가슴 속에 한(恨)이 맺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친가

족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타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엄청난 행복이지만 내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 가슴에 한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한편 10명의 스웨덴 입양인들은 17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가족을 찾는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K-전남 김’ 프리미엄 브랜드로 세계화

시제품 출시 11월 본격 판매 SNS 바이럴 마케팅 등 홍보

전남도가 전남만의 김 브랜드를 출시하고 세계인의 입 맛 사로잡기에 나선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 김’ 시제품을 출시하고 오는 11월 본격 판매에 나선다.

K-전남김은 시장에서 판매 중인 일반적인 김과는 달리, 신선에서 생산한 곱창돌김으로 만든 프리미엄이다.

전남도는 전남이 전국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전남 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전남도는 K-전남김 출시를 계기로 전남 김을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 반도세’로 불리는 김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남도는 K-전남김 소개자료를 제작해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전남 김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K-전남김은 전남 김 상품화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안천사김이 생산하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전남도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9월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에서 홍보관을 운영, K-전남김 시식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남도는 추후 해외 상설판매장과 현지 한인마트,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등에 제품을 입점시키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글로벌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기원한 대형 판촉행사를 열고,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바이럴 마케팅 등 다각적 홍보전략을 추진한다.

K-전남김은 오는 11월부터는 신안천사김 자사물과 남도장터 등 온라인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상징물 명칭 공모

전남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상징물의 명칭을 공모한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건물 외관에 핵심 상징물 역할을 할 알리미늬 재질의 패널이 설치됐다.

영산강 방면으로 설치된 3만 3000여장의 패널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데, 이 모습이 나라가 위

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남도의병의 빛과 희생정신을 상징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명칭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소통인(人) 전남’ 설문광장’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1월 중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외벽 상징물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전남도는 총 3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전남도지사 상징과 기념품을 수여하고, 시상식은 2026년 3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개관준비단 관계자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상징물은 침략과 외세의 폭력에 저항했던 남도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유인도 닥터헬기 착륙장 10곳 중 3곳 뿐

골든타임 소외...예산·인력 지원 필요

전남 유인도(有人島) 10곳 중 3곳 꼴로만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유인도(연륙 섬 제외) 232곳의 69.8% 비중인 162곳에는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유인도가 가장 많지만 닥터헬기가 뜰 수 있는 비중이 30.2%(70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36.6%(320곳 중 117곳)를 밑도는 수치다.

유인도 대비 인계점이 있는 섬 비중은 사·도별로 인천(77.8%), 제주(75.0%), 경기(66.7%), 충남(48.3%) 순으로 높았다.

의료 취약지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단이 닥터헬기는 전국 8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한국병원에 닥터헬기 1대가 2011년

도입돼 운행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닥터헬기 추가 배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닥터헬기 대기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0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좋은환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 952-3

청산인 안동현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5 조대부고인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2025. 10. 19(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조성래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신고와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거나 비하여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개장: 7기
2. 분묘의 개장: 7기
3. 개장비용: - 타인의 묘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 묘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a) 유언분묘 - 연고자와 협의의 개장 (b)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할 행정청에 행정청의 개장
5. 개장 후 조치: 3일 이내
6. 신고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월 15일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분묘: - 공고 및 인·출입일회 대표이사 고함 - 신고 및: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월 15일 - 업무대행: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월 15일
8. 신고지: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월 15일
9.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3일이내 관할청에 유언분묘와 개장 중 주기도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공고인: 이 대표이사 고함

신고지: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월 15일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최고. 대지 848.5㎡ 건물 3,846㎡ (신원산과 마추동중과 약국,상업중)

현재 월 3천 1백, 수익률 7% 매 69억 9천. 인수가 17억

군산중심대로. 롯데마트 앞.

주인직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정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매매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당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탁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탁